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는?

지금 한국사회는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폭력과 차별, 통제와 비교육적 관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 징계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보복적인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정책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대선 후보들의 핵심 정책으로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정책' 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전국의 교육·인권·사회·청소년 등 각계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 징계 관련 적법절차 보장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학교를 넘어 가정,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홈페이지 www.인권.net

트위터 @SRightPlus

페이스북 fb.com/srightplus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736-370698(예금주 : 배경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www.인권.net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경쟁에서의 낙오, 불안사회의 위협으로 학생을 겁주는 교육, 학생을 단속과 적발,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도 이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까봐, 혼날까봐 겁을 집어먹은 채 성장한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도 겁을 집어먹고, 평생 사회가 조성한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틔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낙인, 불이익,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도 커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유예한 사람에게 행복한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내일입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이웃을 대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힘을 갖고 있듯이, 인권을 존중받아본 사람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힘을 갖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변화의 핵심 의제로 삼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연결짓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답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될 때 진정한 배움이 싹틔웁니다. 강요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존과 자율을 익힐 수 있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태리는 행위만이 폭력이 아니라, 모든 차별이 곧 폭력입니다. 또한 모든 폭력은 차별의 고리를 타고 흐릅니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교육, 질서나 '-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죽이는 교육, 차별을 외면하는 교육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도 따리를 틀기 어려워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성숙해 나갑니다. 실수할 권리,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가 보장돼야 성숙할 기회, 책임질 기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수가 치명적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것, 그것이 곧 차별의 끝과 시작입니다. 정체성의 차이, 타고난 환경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책임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말입니다. 책임은 자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자유가 책임의 전제조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일 때 그 결과에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은 사람이 동료와 사회에 대한 정당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움을 익혀가는 교실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민주적으로 대하는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